

『일년』의 검열과 개작*

김 영 애**

요약

박영준의 『일년』은 두 번의 검열로 원작에 대한 이중의 삭제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발표 당시 총독부 검열에 의한 원본 삭제, 해방 이후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 작가에 의한 연재본 수정 및 삭제가 그것이다. 본고는 식민지시기와 해방 이후 『일년』이 외부검열과 자기검열에 의해 ‘이중의 삭제’를 당한 이유와 배경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34년 『신동아』 연재본과 1974년 단행본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검열과 개작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일년』이라는 텍스트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작가에 의한 개작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단행본 출간 시기가 워낙 늦은 탓도 있겠으나 이미 연재 단계에서 검열이 작동해 원작의 삭제가 이루어진 점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단행본 개작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일년』의 검열과 개작 양상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일년』은 식민지시기 총독부의 검열에 의한 삭제 그로부터 40년 후 작가 스스로에 의한 수정과 삭제 등 이중의 삭제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첫 번째 삭제가 외부 검열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작가의 자기검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원작의 표현을 다듬는 수준을 넘어 서사적 구성 차원의 수정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단정 수립 직후 박영준이 누구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한 사실을 토대로 보면 『일년』에 대한 자기검열과 개작이 어떤 목적과 배경 하에 이루어졌는지 짐작 가능하다. 즉 해방 이후 ‘중간파’로 분류되었던 박영준은 1949년을 전후로 한 전향 선언으로 체제 선택을 강요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전향은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관계한 경력에 대한 자기검열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할 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A2A03045339)

**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초빙교수

있다.

주제어: 박영준, 일년, 외부검열, 자기검열, 개작, 이중의 삭제, 농민문학

목차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2. 『일년』의 검열과 개작
3. 외부검열에 의한 삭제
4. 자기검열에 의한 개작
5. 이중의 삭제와 개작의 의미

1. 선행연구 검토와 문제제기

박영준의 장편소설 『일년』은 1930년대 농민문학의 한 경향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거론되어왔다. 이 작품은 1934년 3월부터 12월까지 『신동아』에 9회 연재 완료되었고, 1974년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1974년 이전 단행본으로 출간된 기록이 없으며 심지어 해방 직후에도 출간되지 않았다. 이 작품이 그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오랫동안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 작가는 한국전쟁 중 원고 유실을 이유로 들었으나 그의 작품 대부분이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과 비교하면 그 배경에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더욱이 『일년』의 원고는 『신동아』 연재본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단행본을 출간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년』의 단행본 출간 지연 문제가 식민지시기 총독부 검열로 인한 원문 삭제와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보고 『일년』에 대한 검열과 삭제, 그로 인한 개작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974년에서야 첫 단행본이 나왔다는 것은 그간 이 작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부족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검열과 개작으로 인해 원본 텍스트를 확정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선영은 박영준의 『일년』에 대해, “1930년대 한국 농촌소설 가운데 대표적 사실주의 작품의 하나”¹⁾라고 평가했다. 정현기 또한 “서술의 객관성 유지를 통해서 이광수나 심훈이 범했던 교도적 계몽성으로부터 탈피했을 뿐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 서서 당시대 농민의 정서를 전형화했다는 점”, “사회 현상에 대한 투시와 함께 당위론적 가치기준을 상징적으로 암시한 점에서 이 작품은 사실주의 작품으로 크게 성공한 예”²⁾라고 평가했다. 박영준의 『일년』에 대한 기존 논의는 대체로 작가의 등단 초기 작품세계를 규명할 근나 1930년대 농민문학의 일환으로서의 사실주의적 경향성³⁾을 드러낸 작품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본고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검열과 개작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는 찾기 어렵다.

이순은 “『일년』이라는 박영준의 장편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무척 생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신동아에 게재되었던 소설이다. 삭제 부분이 많아 때로는 스토리가 연결되지 않을 정도의 의식소설이다. 당시의 농민들의 일년 생활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작품으로 주로 일제의 세금과 부역, 국내 지주의 소작료 등에 착취와 핍박을 계속 당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만큼 그렇게 상당한 양이 삭제 당한 까닭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라고 진술하면서, “작자는 그 심한 삭제로 인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농민의 의식이 삭제되어 작품의 핵심이 흐려졌다 고 한탄”⁴⁾했다고 하여 이 작품에 대한 검열과 삭제의 정황 및 작가의 심

1) 이선영, 『貧困과 孤獨의 意味 朴榮濬의 作品世界』, 『연세어문학』7,8합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33면.

2) 정현기, 『作家的 社會意識論Ⅱ- 朴榮濬의 장편소설 『一年』을 中心으로』, 『연세어문학』7,8합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136면.

3) 권영기, 『박영준의 농민소설 연구-『일년』과 『모범경작쟁』을 중심으로』(연세대 석사논문, 1977); 이주성, 『한국 농민소설 연구-1920-1930년대 농민소설을 중심으로』(세종대 석사논문, 1986); 김병호, 『농민소설 연구-이무영과 박영준의 작품을 중심으로』(고려대 석사논문, 1987); 조남철, 『일제하 한국 농민문학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1985); 김종욱, 『강서 적색농민운동과 박영준: 『일년』을 중심으로』(『구보학보』22, 구보학회, 20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을 정리하고 있다. 정윤숙의 논의에도 “작품 중 일곱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호세’ 편이 완전 삭제되고, 그 밖에도 일부분이 일체의 검열로 삭제되어 있다.”⁵⁾라는 언급이 등장한다. 이순과 정윤숙의 논의는 이 작품의 검열 문제를 단편적으로나마 제기하고, 그에 따라 『신동아』 연재본이 실제 원작과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례로 보인다.

박영준 소설의 농민문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작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삭제 당한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검열과 개작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미를 평가하는 것은 불완전한 접근 방식이다. 실제로 이 작품은 최초 발표 당시 텍스트 원문이 잡지 지면에 온전히 게재되지 못하고 검열에 의해 원작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상태로 연재되었다. 또 1974년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 작가에 의해 작품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었다. 즉 『일년』은 외부검열과 자기검열에 의해 두 차례 삭제와 수정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문학사적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다루지 않은 검열과 개작의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일년』의 검열과 개작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고 식민지시기 연재소설에 가해진 검열의 작동 방식과 이로 인한 개작 간의 인과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더불어, 박영준이 『일년』을 처음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신동아』 연재본 중 상당 부분을 개작한 점에 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신동아』 연재본의 검열과 삭제에 대해 언급했지만 작가에 의한 개작에 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 『일년』이라는 텍스트가 외부검열을 거쳐 삭제된 부분과, 이후 작가에 의해 개작된 부분을 비교 대조해 그 차이를 밝힘으로써 개작의 양상 및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단행본 개

4) 이순, 『農民文學考 박영준의 『일년』을 중심으로』, 『연세어문학』78합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240면.

5) 정윤숙, 『박영준 소설에 나타난 사회의식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6, 25면.

작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일년』의 검열과 개작 양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일년』의 검열과 개작

박태원이 1936년에 발표한 『천변풍경』에서 1930년대 경성 청계천변 일대의 사계절 풍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묘사한 것처럼, 박영준은 동시대 농촌의 사계절을 서사적 방법으로 재구성했다. 박영준 장편소설 『일년』은 『신동아』 창간 2주년 기념 현상문에 당선작으로 1934년 3월부터 12월 까지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1974년 연세대학교 ‘대학문고’ 7권 『박영준 당선 작품집』으로 처음 출간되었고 여기에는 작가의 말인 ‘前記’, 콩트 ‘새우젓’(신동아 현상문에당선), 단편 ‘모범경작생’(조선일보 신춘문에당선) 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표제가 지시하는 바와 같이 이 단행본에는 박영준의 문예 당선작 세 편이 전체 214면의 문고판 형태로 수록되었다. 콩트 ‘새우젓’은 박영준이 『신동아』에 응모해 『일년』과 함께 당선된 작품이다.⁶⁾ 지면 발표 시기는 단편 ‘모범경작생’(『조선일보』 1934.1. 10-1.23)이 앞서나, 실제 창작시기는 장편인 『일년』이 앞설 것으로 짐작되는 만큼 『일년』을 박영준의 처녀작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⁷⁾

다른 작품들과 달리 단행본 『일년』은 작가의 말년에 처음 세상 빛을 보았다. 1974년은 그가 사망하기 2년 전으로, 박영준의 제자들이 그의 등

6) 1934년 『신동아』 창간 2주년 기념 현상문에 당선작 2편(장편소설 1편과 콩트 1편), 『조선일보』 신춘문에 당선작 1편이 동시에 발표되자 당시 문단에서는 이를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박영준의 창작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고 알려졌다.

7) “昭和七年 여름 처음으로 『서골 敎員의 하로』라는 콩트가 조선일보에 발표되었을 때 동모들이 전부 칭찬해준 데 용기가 자라났다.”(박영준, 『고독나의 소설수업』, 『문장』, 1940. 7, 234면)라는 서술에 따르면 박영준은 『모범경작생』 이전인 1932년 여름 『조선일보』에 콩트 『서골 敎員의 하로』를 먼저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단 4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준은 이 단행본의 「前記」에서 『일년』에 대해 “농민의 생활을 씨 뿌릴 때부터 시작하여 여름 가을을 지나 다시 씨 뿌릴 때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기록해온 작품”⁸⁾으로 설명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난하게만 살던 농민들 - 그들은 대부분이 소작인이었다. 그 소작인들은 일본의 세금과 부역 등으로 부당한 착취를 당했고 또 국내 지주의 지나친 소작료에 신음하며 희망이란 것을 잃은 채 살아왔다. 그러한 소작인들의 가난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려 했던 것이 『일년』이다. 말하자면 되풀이되는 소작인의 일년 동안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려보려 한 작품이다.⁹⁾

1934년 등단과 더불어 박영준은 문단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신진작가로 부상한다. 1955년 「文學에 自信을 가져보던 일-당선 당시의 소감」이라는 회고록에서 박영준은 등단 경험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小説을 쓸 수 있을 것이라는 自信을 스스로 가졌던”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해 작품 세 편이 동시에 공모전에 당선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새우젓」은 작가가 익명으로 응모했다고 밝혔다. 화려한 등단으로 당대 문단에서도 박영준의 창작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컸다고 알려졌다. 작가 스스로 이를 “昭和九年 學校를 나오던 봄철 就職해야 되겠다는 생각 外에 아모것도 없을 때 써두었던 作品 셋이 거이 一時에 發表되었고 또한 大家들의 好評을 처음으로 받았다.”¹⁰⁾라고 회고했으며, 임화는 「모범경작생」에 대해 “懸賞文藝와 일반 작가의 작품을 통틀은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 가치가

8) 박영준, 「나와 東亞의 因緣 文壇 重鎮의 回顧 文學에 自信을 가져보던 일」, 『동아일보』, 1955. 8. 19.

9) 박영준, 「前記」, 『박영준 당선 작품집』, 연세대출판부, 1974, 4면.

10) 박영준, 「고독나의 소설수업」, 『문장』, 1940. 7, 234면.

있는 작품¹¹⁾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박영준은 등단과 동시에 총독부 검열에 의해 원작의 상당한 분량을 삭제 당하는 경험을 해야 했다. 공모전 당선작이 사전검열로 삭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등단의 기쁨과 검열에 의한 작품 훼손을 동시에 경험한 것이다. 작가는 1934년 발표 당시 총독부의 검열로 인해 원문 중 상당 부분이 삭제 당했고 이로 인해 작품의 핵심인 창작의도가 약화되었다고 술회했다. 소작인의 일년을 있는 그대로 그리기 위해 이들이 당한 부당한 착취 실태와 이들의 절망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했던 목적이 검열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한탄한 것이다. 삭제 당한 부분은 이러한 착취와 절망의 묘사에 해당한다. 여기서 식민지시기 검열 작동 방식의 한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신문이나 잡지에 게재되기 전 사전검열의 일환으로 검열 당국이 납본 원고를 검열하여 부적절한 내용을 강제로 삭제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미 많은 논자들에 의해 이러한 방식의 검열 문제가 논의되었다.

손혜민은 “단정 수립 이후 문인들의 전향은 49년 11월을 전후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중에서 박영준은 다른 문인들보다 앞서 자발적으로 전향을 선언한 것으로 유명¹²⁾”하다고 밝혔다. 박영준은 『모범경작생』과 『일년』을 잇달아 발표하는 한편으로, 고향 평안남도 강서 일대를 중심으로 한 적색 농민운동(강서적화사건)과 관련을 맺고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수감 생활 이후 박영준은 농민소설 창작과 거리를 두었고 단정 수립 직후 전향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옥은 이를 두고 ‘정신적 훼손’이라 평가하면서 박영준이 자신의 농민소설을 떠올릴 때마다 수감 생활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연관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¹³⁾

11) 임화, 『新春創作概評』, 『조선일보』, 1934. 2. 18.

12) 손혜민, 『단정 수립 이후 ‘전향과 문학자의 주체 구성-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사이間SAI』11, 국제한국문화학회, 2011, 166면.

13) 김종옥, 앞의 논문, 386면. 이와 더불어 유년기 부친의 독립운동 이력으로 인한 옥사에 대한

『일년』이 총독부 검열에 의해 내용 일부가 삭제된 채 발표된 것도 이러한 트라우마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작품의 일곱 번째 장을 포함해 많은 분량이 강제로 삭제되고 이로 인해 작품의 주제의식이 흐려졌다고 작가 스스로 평가할 정도라면 검열로 인해 박영준이 받았을 충격 또한 미미한 수준이 아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 그가 1934년 『모범 경작생』, 『일년』으로 문단에 입문하자마자 농민운동 관련 소설의 창작을 접은 이유도 당시 검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영준의 농민문학에 대한 ‘정신적 회절’ 행위는 그의 초기 작품세계가 보여준 무산계급운동으로서의 농민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 그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농민운동으로 인한 투옥의 경험과 검열에 의한 작품의 훼손이다. 『일년』이 연재된 기간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카프의 강제 해산으로 이어지는 ‘신건설 사건’이 1934년 5월 이고 이로 인해 많은 문인들이 검거·투옥되었다. 『일년』이 검열에 의해 삭제당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작품은 연재소설의 형식을 취한 것이지만, 여타의 연재소설과는 달리 현상문에 당선작이기 때문에 전작(全作) 장편이라 할 수 있다. 즉 『신동아』 현상공모에 출품할 당시 이미 작품이 완성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것을 적절한 분량에 따라 나누어 연재를 하기 시작한 것이 1934년 3월호부터이다. 그런데 완성된 전작이 잡지에 연재되는 과정에서 검열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전검열 탓에 『일년』은 원작과 달리 검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지 않은 분량이 삭제된 이후 『신동아』에 연재되었다. 사전검열로 인해 원작이 훼손되고, 결국 『일년』의 원작이 정확히 어떤 형태와 내용이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게 되었다. 남아 있는 판본은 모두 사전검열 이후 출간된 것이기 때문이다. 1934년 『신동아』 연재본, 1974년 『박영준 당선 작품집』 수록본, 그리고 그 이후 출간된 각종 전집 수록 판본 모두

기억도 트라우마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분석된다.

원작이 아니라 검열로 원문 일부가 삭제된 판본이다.

3. 외부검열에 의한 삭제

박영준은 『일년』에 대한 출판경찰 당국의 검열로 인해 작품의 주제의 식이 약화된 채로 연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작인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해 온 수탈과 착취의 문제를 현장감 있게 다룬 대목들이 대거 삭제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원고의 사전검열로 인해 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검열 이전의 원본이 대중들에게 공유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일년』의 정본 확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텍스트 정본 확정은 문학연구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영역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년』의 원본 텍스트는 현재 남아 있지 않고, 검열로 인해 삭제된 판본만이 남아 있다.

그렇다면 『일년』의 텍스트 가운데 무엇을 정본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남은 판본은 1934년 『신동아』 연재본을 토대로 출간된 것들이다. 그런데 『신동아』 연재본은 사전검열에 의해 텍스트 일부가 삭제된 ‘불완전한’ 텍스트이다. 『일년』의 텍스트 확정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장에서는 『일년』의 두 판본, 곧 『신동아』 연재본과 1974년 단행본을 비교·대조해 그 차이를 확인하여 검열로 인한 개작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선출판경찰월보』 등 검열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검열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나마 『신동아』 1934년 12월호 압수와 관련된 검열 기록이 있으나, 이는 『일년』의 사전검열과 무관해 보인다. ‘출판법 위반’으로 해당 잡지가 통째로 차압된 것이니 이는 『일년』에 대한 검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잡지 자체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일년』의 검열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박영준 당선 작품집』에는 검열로 삭제

된 부분을 작가가 일일이 부기해두었다. 삭제의 흔적을 최대한 복기해놓았다는 점에서는 단행본에 수록된 텍스트가 원본에 더 근접한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단행본에서 또 다시 개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정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발표된 『신동아』 수록 텍스트는 1934년 3월호부터 12월호까지 9회 연재되었고 이중 6월호에는 연재되지 않았다. 본문 전체 26장 중 1-10장은 봄, 11-21장은 여름, 22-23장은 가을, 24-26장은 겨울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중 7장 ‘戶稅’ 편 전체와 ‘治道’, ‘신축농장’, ‘의사’ 장의 일부가 연재 이전 검열 과정에서 삭제된 채 발표되었다. 정확한 분량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발표 당시 총독부의 검열로 3분의 1 가량 삭제”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⁴⁾ 특히 작가가 과도한 세금과 부역으로 인한 소작인들의 부당한 수탈 현장을 사실적·비판적으로 묘사한 대목이 대폭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 연재본 목차는 다음과 같다.

〈표1〉 『신동아』 연재 『일년』(『신동아』, 1934) 목차

| | 제목 | 『신동아』 수록 | 비고 |
|---|--------|------------|-------------------------|
| 1 | 보리밭 | 제1회 1934.3 | |
| 2 | 감자장사 | 제1회 1934.3 | |
| 3 | 김참봉 | 제1회 1934.3 | |
| 4 | 출가(出家) | 제1회 1934.3 | |
| 5 | 공장에서 | 제1회 1934.3 | |
| 6 | 조밭 | 제1회 1934.3 | |
| 7 | 호세(戶稅) | 미수록 | 戶稅篇 全部 削除(연재본 및 단행본 부기) |
| 8 | 치도(治道) | 제2회 1934.4 | 二面 삭제(연재본 및 단행본 작가 부기) |
| 9 | 모 | 제2회 1934.4 | |

14) 송하춘,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고려대출판부, 2015, 395면.

| | | | |
|----|--------------|-------------|--|
| 10 | 단오 | 제2회 1934.5 | |
| 11 | 김 | 제3회 1934.7 | |
| 12 | 一等賞(일등상) | 제3회 1934.7 | 단행본에서 ‘일등상(一等賞)’으로 수정 |
| 13 | 신축농장(新築農場) | 제4회 1934.8 | ‘중간 일부 삭제 당함(단행본 작가 부기) 연재본에 삭제 표시 없음 |
| 14 | 보리가을! | 제4회 1934.8 | |
| 15 | 의사 | 제5회 1934.9 | ‘중간 일부 삭제 당함(단행본 작가 부기) 연재본에 삭제 표시 없음 |
| 16 | 부상(父喪) | 제5회 1934.9 | |
| 17 | 葬禮 | 제5회 1934.10 | |
| 18 | 영순의 설음 | 제5회 1934.10 | |
| 19 | 약혼과 파탄 | 제6회 1934.11 | |
| 20 | 도주(逃走) | 최종회 1934.12 | |
| 21 | 팻밭 | 최종회 1934.12 | |
| 22 | 추수(秋收) | 최종회 1934.12 | |
| 23 | 가을달밤 | 최종회 1934.12 | |
| 24 | 벼맛질 | 최종회 1934.12 | |
| 25 | 이것이 겨울 | 최종회 1934.12 | |
| 26 | 소작인조합(小作人組合) | 최종회 1934.12 | 단행본에서 ‘농민의 각성’으로 제목 수정 |

『신동아』 연재본에서 검열로 인한 삭제의 흔적을 찾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작가 스스로 검열 당한 사실과 그로 인해 원작을 삭제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최초 발표본인 『신동아』 연재본과 단행본의 비교를 통해 정황을 유추하는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신동아』 ‘제1회’ 연재 시 ‘長篇小說’, ‘一等入賞 一年’이라는 표기가 등장하고, 첫 장 제목은 ‘보리밭’이다. ‘제2회’ 연재 시작 첫머리에 “戶稅 篇은 不得한 事情으로 省略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부기가 등장한다. 2회분 연재는 ‘치도(治道)’와 ‘모’, ‘단오(端午)’ 등으로 각각

1934년 4, 5월호에 분재되었고 ‘모’ 편 시작 전 “戶稅 篇과 治道 篇은 不得 已한 事情으로 略하오니 作者와 讀者는 解諒하소서”라는 부기가 있다. 이 부기는 『일년』의 검열과 삭제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일년』의 원작 삭제는 작가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동아』 편집진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이다. 결국 박영준조차 『일년』이 연재 과정에서 삭제 당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제3회’는 ‘감’, ‘一等賞(일등상)’ 등 두 장, ‘제4회’는 ‘신축농장(新築農場)’, ‘보리가을!’ 등 두 장, 그리고 ‘제5회’는 ‘의사’, ‘부상(父喪)’, ‘葬禮’ 등 세 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신축농장’과 ‘의사’ 또한 원문 일부가 삭제되었다고 작가가 밝혔지만, 『신동아』 연재본에는 이러한 삭제 관련 부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삭제 정도가 ‘호세’나 ‘치도’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오랜 세월이 지나 불완전한 기억에 의지해 ‘신축농장’과 ‘의사’의 중간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1974년 단행본 『前記』에서 언급했다. 따라서 정확히 어느 정도, 어느 대목에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제6회’는 ‘약혼과 파탄’, 마지막회는 ‘完’으로 ‘도주(逃走)’, ‘팻밭’, ‘추수(秋收)’, ‘가을달밤’, ‘벼맛질’, ‘이것이겨울’, ‘소작인조합(소작인조합)’ 등 6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마지막 장 ‘소작인조합’은 단행본에서 ‘농민의 각성’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팻밭’ 장의 일부 대사가 지워진 채로 연재되었다. 성순과 순환의 대화 중 연재본에서 지워진 2행 정도가 단행본에서 복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은 돈만 있으면 농사도 쉬웁게 하겠단 말이야! 암모니아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이놈만 뿌리여노면 모래땅이라도 나달이 썩어지게 되니까!” 성순이가 땀을 흘리면서 뒤에 오는 순환이에게 말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나서 더 못살게만 되지 그런 것이 없든 때야 이러케 살남 사리가 밝하대겠나?” “그것이 이상하단 말이야 세상이 발달해가는데 하루

바지쩍과 지금이 댜판 다르게 살기가 힘드니까!” “응! 세상이 발달하는 것이 (이하 2행 정도 삭제 처리) 그래서 돈없는 사람이야 조상때보담 몇배나 잘살지 않냐?”¹⁵⁾

“요즘은 돈만 있으면 농사두 쉽게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암모니아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이놈만 뿌리면 모래땅이라두 낱알이 썩어지게 되니까” 성순이가 땀을 흘리면서 뒤에 오는 순환이에게 말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생겨서 더 못살게만 되지. 그런 것이 없던 때야 이렇게 살림살이가 박했었나?” “그것이 이상하단 말이야! 세상이 발달해가는데 할아버지 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가 힘이드니……” “응, 세상이 발달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게 모두 돈 있는 사람 위주란 말이야.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조상 때보다 몇배나 잘살지 않냐?”¹⁶⁾

이 대목에 대해 작가는 별다른 주석을 달지 않았다. 기술 발전으로 근대화의 수혜를 입는 대상이 “모두 돈 있는 사람 위주”라는 순환의 대사가 『신동아』 연재본에서 삭제되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면의 삭제 방식과는 달리 대사 중 일부 표현만 지운 채 인쇄되었다. 즉 인쇄 과정에서 순환의 대사 일부를 의도적으로 지운 것이다. 근대화로 인해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격차가 더 심화된다는 이 대화의 내용은 식민지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자 그로 인한 계급 갈등의 심화에 대한 비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전검열에 의해 이루어진 원작의 삭제는 작품 전편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작가 자신도 사전검열에 의해 원작이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삭제 이전 원본도 남아 있지 않다. 원본 상실로 인해 『신동아』 연재본 중 삭제된 내용의 복원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일년』의 텍스트는 그 온전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단행본

15) 『신동아』, 1934. 12.

16) 『일년』, 187-188면.

출간 과정에서 작가가 부분적인 복원을 시도했으나 삭제 이전 원본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또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일년』은 원본을 삭제 당한 상태로 연재된 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는 박영준이 해방 이후 문단과 학계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 이력과 대조적이다. 실상 『모범경작생』을 포함해 그의 작품 대부분이 해방 이후 재출간되었으나 유독 『일년』만이 1974년에야 처음 단행본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내포하고 있다.

4. 자기검열에 의한 개작

일반적으로 개작은 외부 힘에 의한 것이든, 작가 자신에 의한 것이든 표면상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검열에 의해 작품이 삭제되거나 훼손된 채로 발표되는 경우는 자발적인 개작이 아니라 강제적인 개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작가 자신도 작품이 삭제된 사실을 연재나 발표 이후에나 알게 되는 경우로 『일년』은 이러한 강제적인 개작에 해당한다. 사전검열에 의한 개작의 문제는 작품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연결된다. 작품 발표 이전에 검열로 특정 부분이 삭제된 채로 신문이나 잡지 지면에 게재되기 때문에 독자는 작품의 원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작가 또한 삭제된 부분을 정확히 복기해 원본을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곧 원본 상실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작품의 원본이 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는 텍스트 해석에 중대한 결핍을 야기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강제 개작과 별개로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 작가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진 부분도 드물지 않게 확인된다. 즉 『신동아』 연재본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과정에서 박영준은 원본의 내용을 일부 수정했다. 앞서 살핀 『신동아』 연재본 목차와 비교할 때 단행본 『일년』의 가장

큰 변화는 작가 스스로 밝혔듯 문장, 철자법 위주의 운문과 검열로 삭제된 대목을 최대한 복원한 것이었다. 두 판본의 목차는 마지막 장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다. 박영준은 『일년』 첫 단행본의 「前記」를 통해 콩트 「새우젓」과 장편 『일년』이 최초 발표 이후 “한번도 그 얼굴을 보인 적이 없”으며 “作品을 오려 보관해 오던 스크랩을 6·25 動亂에 紛失”했다고 밝혔다.

“河東鎬 教授가 新東亞 奎秩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그에게 好意를 구하여 그 책으로 제록스를 떴다. 나는 제록스로 뜯은 것을 修正하면서 『一年』을 다시 읽었다. 가장 初期의 作品이기 때문에 文章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철자법도 현행 철자법과 많이 달랐다. 그래서 정정을 했지만 전적으로 고칠 수는 없었다. 그런 만큼 不滿이 많은 作品이다. 그러나 나는 日帝의 搾取政策 밑에 신음하던 當時의 農民生活을 그린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作品이라 생각했다. (중략) 그러나 税金으로 搾取當하던 이야기와 賦役으로 犧牲되던 이야기들은 당시 削除가 되었다. 日帝에 抗拒하는 農民들의 意識이 削除됐기 때문에 核心을 잃은 作品이 되고 만 느낌이다. 그래서 削除 當한 部分을 補完해 보려 했으나 그 作品을 쓰던 當時의 記憶들을 되살릴 수가 없어서 補完을 못한 채 出版하게 된 것을 作者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할 뿐이다.”¹⁷⁾

『신동아』 연재 후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 『일년』이 처음 단행본으로 묶여 나올 때 박영준은 연재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그에 따르면 1974년 단행본은 하동호 교수가 소장한 『신동아』 연재본을 저본으로 삼아 출간되었다. 또 『일년』의 원작 중 “세금으로 착취당하던 이야기와 부역으로 희생되던 이야기들”이 연재 당시 삭제되었고, 그로 인해 『일년』은 “일제에 항거하는 농민들의 의식이 삭제됐기 때문에 핵심을

17) 「前記」, 3-5면.

않은 작품이 되고” 말했다. 그는 “당시의 기억을 되살릴 수가 없어서 보완을 못한 채 출판”했다고 밝힘으로써 『일년』의 원본이 온전히 남아 있지 않음을 고백했다. 그러나 삭제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대략 밝혀 놓았기에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하나, 이 또한 작가의 불완전한 기억에 의지한 결과이기에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작가가 한국전쟁 때 분실한 원고 역시 무삭제 원본이 아니라 검열된 『신동아』 ‘스크랩’이며, 1974년 첫 단행본 출간 시 참조한 저본 또한 하동호 교수가 소장한 『신동아』 연재본이다. 결국 작가는 『일년』의 원본을 별도로 보존하지 않은 셈이며, 따라서 『일년』의 원본에 관해서는 그 실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단행본 『일년』은 작가가 『전기』에서 언급한 부분 외에 특정 내용을 삭제·수정한 부분도 있다. 특히 마지막 장인 ‘소작인조합’은 단행본에서 ‘농민의 각성’으로 제목이 바뀌었고, 그 내용도 원작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소작인조합’ 마지막 구절 중 일부가 단행본에서 삭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럼 우리 확실이가 영순이와 사누만...” 편지를 다 읽은 뒤 그는 놀내인 듯이 말했다. “아마 그런가부외다.....” “그런 말이라도 들이니 고맙네 그년이 어대서 죽이나 앓았을까 걱정이 여간 아니였네.....” “나도 펍 기 뻐데요...” 그들은 옛날과 같은 사돈이 다시 되었다. 소작인조합이 하나 생기었으나 김참봉의 사촌의 따우에 집을 세워놓았던 진억의 집은 얼마 전에 헐니고 그들은 이 한봄을 순환네 적은 사랑방에서 지내었다.¹⁸⁾

“그럼 우리 확실이가 영순이와 사누만...” 편지를 다 읽은 뒤 그는 놀내인 듯이 말했다. “아마 그런가부외다.....” “그런 말이라도 들이니 고맙네 그년이 어대서 죽이나 앓았을까 걱정이 여간 아니였네.....” “나도 펍 기 뻐데요...” 그들은 옛날과 같은 사돈이 다시 되었다.¹⁹⁾

18) 『신동아』, 1934. 12.

『신동아』 연재본의 마지막 대목 중 밑줄 그은 부분은 단행본 출간 시작가에 의해 삭제된다. 『신동아』 연재본의 마지막 한 문장을 삭제한 이유는 아마도 그 내용 때문으로 짐작된다. 작가는 ‘소작인조합’이라는 제목을 ‘농민의 각성’으로 수정하면서 소작인 조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향의 개작은 마지막 대목에 등장하는 영순의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형님! 저는 아직 그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임금을 울니여주어야 일을 하겠다고 공장에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수백명이 합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주인도 말을 듣고야 견디겠지요. 우리는 끝날까지 해보려고 베틀고 있습니다.”²⁰⁾

“형님! 저는 아직 그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웬일인지 공장에서 임금을 올려주어 지금은 살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새 노동자들이 무슨 일을 한 것 같습니다.”²¹⁾

원작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 · 삭제하는 등 박영준은 『일년』의 단행본에서 단순한 표현 수정 차원을 넘는 개작을 수행했다. 이러한 수정을 단순 퇴고라 보기 어려운 이유는 소작인, 노동자들의 저항 행위와 관련된 내용만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 분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작가가 의도적으로 원작의 특정 내용을 제거하고자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핀 박영준의 전기적 이력을 토대로 추정하면 이러한 개작은 『일년』 원작의 계급적, 정치적 색채를 부분적으로 지우려는 의도의 반영으로 보인다. ‘소작인조합’이라는 제목을

19) 『일년』, 214면.

20) 『신동아』 1934. 12.

21) 『일년』, 213-214면.

‘농민의 각성’으로 수정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물론 일부 문장 삭제와 장 제목 수정으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외부검열에 의해 많은 부분이 잘려나간 원작에 작가가 또다시 삭제와 수정을 가했다는 점이다.

『일년』은 식민지시기 총독부의 검열에 의한 삭제 그로부터 40년 후 작가가 스스로에 의한 수정과 삭제 등 이중의 삭제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첫 번째 삭제가 외부 검열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작가의 자기검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원작의 표현을 다듬는 수준을 넘어 서사적 구성 차원의 수정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단정 수립 직후 박영준이 누구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했다는 손혜민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일년』에 대한 자기검열과 개작이 어떤 목적과 배경 하에 이루어졌는지 짐작 가능하다. 그에 따르면 해방 이후 ‘중간파’로 분류되었던 박영준은 1940년을 전후로 한 전향 선언으로 체제 선택을 강요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전향은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관계한 경력에 대한 자기검열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²²⁾

『일년』에 대한 개작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이 작품이 그간 한번도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74년에 이르러서야 첫 단행본이 출간되었고 박영준은 이때 처음 자기검열성 개작을 단행한 것이다. 총독부에 의해 원작의 상당 부분이 삭제된 뒤 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일년』을 새롭게 다듬고 복원하는 작업은 작가 자신에게도 각별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단행본 개작은 해방 이후 작가적 정체성 변화를 드러내는 연장선상에 놓이는 한편 자신의 출세작을 제대로 고쳐 세상에 내놓겠다는 작가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작가의 자기검열성 개작은 작품의 미적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22) 손혜민, 앞의 논문, 166-167면.

일반적인 개작과 다르게 보아야 한다. 『일년』의 개작은 작가의 전향 선언과 무관하지 않은 행위이며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자기검열의 압박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개작의 방향은 정치, 계급의식과 관련된 원작의 서사 일부를 삭제하고 수정함으로써 해방 이후 전향자로서의 작가적 정체성을 증명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5. 이중의 삭제와 개작의 의미

박영준의 『일년』은 두 번의 검열로 원작에 대한 이중의 삭제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발표 당시 총독부 검열에 의한 원본 삭제, 해방 이후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 작가에 의한 연재본 수정 및 삭제가 그것이다. 본고는 식민지시기와 해방 이후 『일년』이 외부검열과 자기검열에 의해 ‘이중의 삭제’를 당한 이유와 배경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34년 『신동아』 연재본과 1974년 단행본의 텍스트 비교를 통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검열과 개작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일년』이라는 텍스트를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작가에 의한 개작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단행본 출간 시기가 워낙 늦은 탓도 있겠으나 이미 연재 단계에서 검열이 작동해 원작의 삭제가 이루어진 점에만 집중한 탓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단행본 개작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여 『일년』의 검열과 개작 양상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고자 했다.

1934년 『신동아』 연재 당시 총독부에 의한 외부검열로 원작 내용 상당 부분이 강제적으로 삭제당한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를 통해 증명되었다. 박영준이 1934년 『모범경작생』, 『일년』으로 문단에 입문하자마자 농민운동 관련 소설의 창작을 접은 이유도 당시 검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박영준의 농민문학에 대한 ‘정신적 궤절’ 행위는 그의 초기 작품세계가 보여준 무산계급운동으로서의 농민운동의 가능성에 대한 포기를 의

미한다. 그만큼 『일년』에 가해진 외부검열과 그로 인한 작품 훼손은 박영준의 창작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중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농민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되던 그가 창작의 방향을 바꾼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사전검열에 의해 이루어진 원작의 삭제는 작품 전편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작가 자신도 사전검열에 의해 원작이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삭제 이전 원본도 남아 있지 않다. 원본 상실로 인해 『신동아』 연재본 중 삭제된 내용의 복원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일년』의 텍스트는 그 온전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단행본 출간 과정에서 작가가 부분적인 복원을 시도했으나 삭제 이전 원본이 보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또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일년』은 원본을 삭제당한 상태로 연재된 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이는 박영준이 해방 이후 문단과 학계에서 매우 활발한 활동을 수행한 이력과 대조적이다. 실상 『모범경작생』을 포함해 그의 작품 대부분이 해방 이후 재출간되었으나 유독 『일년』만이 1974년에야 처음 단행본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이러한 복잡한 사정을 내포하고 있다.

원작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변경·삭제하는 등 박영준은 『일년』의 단행본에서 단순한 표현 수정 차원을 넘는 개작을 수행했다. 이러한 수정을 단순 퇴고라 보기 어려운 이유는 소작인, 노동자들의 처량 행위와 관련된 내용만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 분량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작가가 의도적으로 원작의 특정 내용을 제거하고자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핀 박영준의 전기적 이력을 토대로 추정하면 이러한 개작은 『일년』 원작의 계급적, 정치적 색채를 부분적으로 지우려는 의도의 반영으로 보인다. ‘소작인조합’이라는 제목을 ‘농민의 각성’으로 수정한 것도 이러한 방향성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물론 일부 문장 삭제와 장 제목 수정으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외부검열에 의해 많은 부분이

잘려나간 원작에 작가가 또다시 삭제와 수정을 가했다는 점이다.

『일년』은 식민지시기 총독부의 검열에 의한 삭제 그로부터 40년 후 작가가 스스로에 의한 수정과 삭제 등 이중의 삭제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첫 번째 삭제가 외부 검열에 의한 강제적인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작가의 자기검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원작의 표현을 다듬는 수준을 넘어 서사적 구성 차원의 수정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문제이다. 단정 수립 직후 박영준이 누구보다 먼저 자발적으로 전향 선언을 했다는 손혜민의 논의를 토대로 보면 『일년』에 대한 자기검열과 개작이 어떤 목적과 배경 하에 이루어졌는지 짐작 가능하다. 그에 따르면 해방 이후 ‘중간파’로 분류되었던 박영준은 1949년을 전후로 한 전향 선언으로 체제 선택을 강요당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문학적 정체성을 지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전향은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에 관여했던 경력에 대한 자기검열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영준, 『일년』, 『신동아』 1934. 3-1934. 12.

박영준, 『박영준 당선 작품집』, 연세대출판부, 1974.

2. 논문

권영기, 「박영준의 농민소설 연구-『일년』과 『모범경작생』을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1977.

김병호, 「농민소설 연구-이무영과 박영준의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87.

김종욱, 「강서 적색농민운동과 박영준: 『일년』을 중심으로」, 『구보학보』22, 구보학회, 2019, 369-391면.

박영준, 「고독-나의 소설수업」, 『문장』, 1940. 7.

손혜민, 「단정 수립 이후 '전향과 문학자의 주체 구성-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사이間SAI』1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163-191면.

이선영, 「빈곤과 고독의 의미: 박영준의 작품세계」, 『연세어문학』7,8합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23-34면.

이 순, 「農民文學考-박영준의 『일년』을 중심으로」, 『연세어문학』7,8합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231-241면.

이주성, 「한국 농민소설 연구-1920-1930년대 농민소설을 중심으로」, 세종대 석사논문, 1986.

임 화, 「新春創作概評」, 『조선일보』 1934. 2. 18.

정운숙, 「박영준 소설에 나타난 사회의식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1996.

정현기, 「작가의 사회의식론Ⅱ- 박영준의 장편소설 『一年』을 중심으로」, 『연세어문학』 7,8합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115-137면.

조남철, 「일제하 한국 농민문학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5.

<Abstract>

A study on the censorship and revision of “The One Year”

Kim, Young-Ae

Park Young-joon's “The One Year” is a double-deletion of the original work through two censorships. They include the deletion of the original copy by external censorship at the time of the first announcement in the *Shindonga*, and the revision by the author in the process of publishing the book after liberation. With the aim of exploring the reasons and backgrounds of double deletion due to external and self-censorship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fter liberation, this paper tried to provide specific grounds through text comparison between the *Shindonga* edition in 1934 and the separate volume in 1974. Even in the prior study, which analyzed the text “The One Year” based on the keywords of censorship and reformation, the issue of rewriting by writers was not dealt with as important. The reason is that the publication of the book is very late and this may be partly due to the fact that the original work has already been censored and deleted. Based on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this study tried to discuss the overall censorship and rewriting aspects of the book by adding discussions on the revision of the book. “The One Year” is a work of double deletion, from the dele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 the revision and deletion by the author himself 40 years later. While the first deletion was compulsory by external censorship, the second was by the author's self-censorship. It is not a simple matter to

extend beyond the level of refinement of the original work to the revision of narrative composition. Park Young-joon voluntarily declared his conversion righ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It is possible to guess what purpose and background the self-censorship and conversion of “The One Year”. Park Young-joon, who was classified as a “middle-class” after liberation, was forced to choose his regime in 1949 due to his declaration of conversion, which forced him to erase his earlier literary identity, and his conversion can be estimated as a result of his self-censorship of his career in the Chosun Literary Union after liberation.

Key words: Park Young-joon, “The One Year”, external censorship, self-censorship, revision, double-deletion, peasant literature

투 고 일 : 2020년 8월 1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2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